



Original Article

Comparison in Care Burden, Fatigue, and Life Contentment of Caregivers by Gender Relationship with Demented Elders*

Lee, Young Whee¹ · Cho, In Sook² · Kim, Hwa Soon³

¹Professor, ²Assistant professor, ³Associate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성별 관계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 피로 및 생활만족도 비교*

이영휘¹ · 조인숙² · 김화순³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¹, 조교수², 부교수³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gender respect to care burden, fatigue, and life contentment of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Methods: The setting of the study was a community-based dementia care center providing daycare services. One hundred ninety four caregivers were recruited for the survey.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which included demographic information, care burden, fatigue, and general contentment scales. Caregiver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by gender relationship with care recipients. **Results:** The majority of the caregivers were middle-aged and elderly. More than twice as many were female rather than male caregivers. The results showed that women caregivers expressed more fatigue than men overall ($p < .05$). In the gender relationships, a different combination of man-woman appeared to have more burdens than that of a woman-woman group ($p < .05$). For fatigue, the man caregiver-woman elderly group showed a higher fatigue score than a woman-man group ($p < .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contentment among group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regiver's gender and gender relationship with elders could be considerable factors when the nurses make a plan in the community for dementia nursing management services.

Key Words : Sex differences, Elderly, Caregivers, Fatigue, Personal satisfac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배가적으로 증가하며 현재 우리나라 치매 발생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5). 이러한 치매는 뇌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인한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전반적인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행동, 정신기능의 감퇴를 초래하게 된다

주요어 : 치매, 성별, 부양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I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253 Yonghyeo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01, Fax: 82-32-874-5880, E-mail: insook.cho@inha.ac.kr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투고일 : 2009년 4월 9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5월 7일 2차심사완료일 : 2009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4일

(Fitten, 2006). 이러한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노인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해 돌보는 사람이 항상 노인과 같이 하여야 하는 부양자 의존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부양자는 이로 인한 정서적 갈등과 부양에 따른 부담감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경험하는 부양 부담감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양 부담감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생활 제한 등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나타나며, 이러한 부양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노인환자의 특성과 주부양자의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적, 가족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Andren & Elmstahl, 2007; Kao & McHugh, 2004; Lee, Kim, Kim, Kim, & Seo, 2003; Lee, Kim, & Cho, 2008).

특히 치매노인 부양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주부양자의 성별에 따라 부양 부담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치매노인의 성별에 따라 부양자들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Tanji 등(2005)은 부양자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부양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Kim과 Lee(1999)도 연구에서도 여성부양자가 남성부양자보다 부담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ao와 McHugh(2004)는 여성부양자가 남성부양자보다 부담감이 더 높다고 하였다. 한편, 부양자 성별 연구에 비해 치매노인의 성별이 부양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Lee 등(2003)은 남자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부양자의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며, Lee, Kim과 Cho(2008)는 남성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Kim과 Lee(1999)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경우 가장 부담감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역시 남자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부담감이 큰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성별 혹은 부양자의 성별에 따라 결과를 살펴보는 즉, 치매노인과 부양자의 특성을 별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 부담감은 노인과 부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계는 양측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별 차이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측의 고려가 필요하고, 이는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관계의 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치매의 속성과 인지 기능 저하와 예측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부양자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치매노인 돌봄에 쏟아

야 하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치매노인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면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들은 부양자들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피로와 함께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피로와 생활만족도의 지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Kim, Kim, Kim, Lee, & Kim, 1998; Matthews, 2003; Navaie-Waliser, Spriggs, & Feldman, 2002). 따라서 치매노인과 부양자와의 성별 관계에 따라 피로와 생활만족도가 달라 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성별 관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담감, 피로도, 생활만족도를 치매노인의 성별과 주부양자의 성별관계, 즉 남성 치매노인에 대한 남성 부양자와 여성부양자, 그리고 여성 치매노인에 대한 남성부양자와 여성부양자 사이의 관계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치매노인 돌봄에 있어 치매노인과 부양자 성별에 따른 고려할 점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를 비교한다.
-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성별 관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를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주간보호센터, 방문간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병·의원에서 의사로부터 DSM-III-R 진단 기준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고 인천광역시 각 구 보건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치매센터 9곳에 내원한 치매노인 부양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편의추출 하였다.

- 치매를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 부양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
- 최근 3개월 동안 치매 또는 동반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치

로나 입원 병력 없이 치매센터를 계속 이용해 온 치매노인의 부양자

- 최근 3개월 동안 치매노인을 계속해서 부양한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스스로 동의한 자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도구는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였다.

1) 부양 부담감

부양 부담감은 부양에 대한 부양자 평가의 한 측면으로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Miller & Cafasso, 1992). 본 연구에서는 Kwon(1994)의 부양 부담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국의 치매노인 부양 부담감 사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로 6개의 하위차원, 즉 사회활동제한 6문항, 치매노인과 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7문항,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5문항, 심리적 부담 4문항, 경제적 부담과 경제활동 제약 3문항, 건강상의 부담 3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개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부양 부담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계산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9이었다. 또한 부양 부담감 하위 범주별로는 사회활동제한이 .834, 치매노인과 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가 .925,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가 .923, 심리적 부담이 .888, 경제적 부담과 경제활동 제약이 .895, 건강상의 부담이 .870으로 나타났다.

2) 피로

피로는 신체적, 정신적 및 신경 감각적인 노동부하에 의한 생체의 반응이며 고단하다는 느낌으로(K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Kim(1999)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피로에 대한 항목 10개, 정신적 피로에 대한 항목 10개, 스트레스성 신체반응으로 나타나는 신경계 피로에 대한 항목 10개,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있음'과 '0, 없음'의 이분척도로 측정되어 0~3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갖는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Kim(1999)의 연구에서는 하위 범주별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9 ~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99이었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환경과 잘 대응하여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정도로(Shin, 2001), 본 연구에서는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scale(Rubin & Bannie, 1992)을 Yoo(2003)가 번역하여 사용한 국문형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977년 Walter Hudson과 Giuli 등이 사회사업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로 개발한(Rubin & Bannie, 1992)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scale을 Yoo(2003)가 번역하여 사용한 국문형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125점 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7$ 이었다.

3. 자료수집

연구팀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각 구의 예산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내 9개의 치매센터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의사로부터 치매진단을 받고 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 중 주부양자가 있는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하였다. 이 목록을 기초로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면담이나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경우 질문지 작성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수집은 가족모임이나 센터 방문, 송영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었다. 최종 203명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무응답이 많았던 설문지 9부를 제외한 194건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AS/WIN 9.1을 사용하였다.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실시했으며, 주부양자의 성별 특성에 따른 주변 자원활용 여부,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의 두 그룹 비교는 각각 Chi-square와 t-test 검정을 수행하였다. 성별 관계에 따른 네 그룹 ANOVA 검정에서는 중간수준의 효과크기(0.25), 유의수준 $p < .05$, 검정력 0.80으로 가정했을 때, 표본 수는 그룹별 44명으로 산출되었으나(Cohen, 1988),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남성 환자와 남성

부양자 조합 빈도가 낮아 그룹별 표본 수가 9~103명으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에 따라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 그리고 각각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독립집단의 비모수통계인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비모수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치매노인의 평균 나이는 78세가 넘었으며, 그 중 여성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87%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사별한 경우가 약 65%에 해당하였다. 치매를 의사에게 진단받은 지는 평균 2.7년 되었으며,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73명), 관절염(51명), 골다공증(30명), 당뇨(30명), 뇌졸중(41명), 백내장(22명)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Table 1).

한편 주부양자의 나이는 평균 54세였으며, 그 중 약 70%가 여성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며느리 관계(37.6%), 딸이나 아들인 자녀 관계(31.4%), 남편이나 부인인 배우자 관계(24.7%)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가족의 경제적 수입은 77%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주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해온 기간은 평균 8년이 넘었다. 대상자의 약 41%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55%에 해당하는 부양자들이 사회적 지원체제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2. 주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 비교

총 부양 부담감과 하위범주 그리고 생활만족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그러나 총 피로도에는 여성 부양자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 = 2.47, p = .014$). 피로도 하위 영역에서는 여성이 신체적, 심리적, 신경학적 피로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에게는 심리적, 신체적, 신경학적 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에서 더 피로도 점수가 높았으나 신체적, 신경학적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Table 3은 성별에 따른 주부양자의 주변 자원활용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서, 남성의 경우 약 70%(38명)가 도우미

Table 1. Characteristics of elders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s (N=194)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 \pm SD |
|-----------------|-------------------|---------------------|
| Demented elders | Age (yrs) | 78.3 \pm 7.8 |
| | Gender | Male |
| | | Female |
| | Education level | < High school |
| | | High school |
| | | \geq Diploma |
| | Religion | Yes |
| | | No |
| Caregivers | Marital status | Married |
| | | Widow/widower |
| | | Single |
| | Dementia (yrs) | 3.7 \pm 4.5 |
| | Co-morbidity | Yes |
| | | No |
| | Age (yrs) | 54.0 \pm 12.8 |
| | Gender | Male |
| | | Female |
| | Education level | < High school |
| | | High school |
| | | \geq Diploma |
| | Religion | Yes |
| | | No |
| | Relationship | Spouse |
| | | Children |
| | | Daughter-in-law |
| | | Others |
| | | |
| | Income | High income |
| | | Low income |
| | Employment status | Employed |
| | | Not employed |
| | Care giving (yrs) | 8.4 \pm 11.3 |

같은 외부 자원이나 이웃, 친척,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50%(69명)에 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주변 자원활용 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6.00, p = .05$).

3.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성별 관계에 따른 비교

대상자의 성별 관계에 대해서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성-여성 조합으로 여성 치매노인과 딸 또는 며느리 관계이었다(Table 4). 동성 중 남성-남성 조합은 약 5%(9쌍)로 남성 치매노인과 아들 관계이다. 이성 관계에서는 여성 치매노인

Table 2. Comparison of care burden, fatigue, and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by caregiver's gender

(N=194)

| Variables | | Male (n=55) | Female (n=139) | t (p) |
|------------------------------|---|---------------|----------------|--------------|
| | | M ± SD | M ± SD | |
| Care burden | Social activity restriction | 22.20 ± 4.44 | 22.41 ± 4.58 | 0.28 (.778) |
| | Negative change of elderly-caregiver relationship | 23.06 ± 6.19 | 23.40 ± 5.98 | 0.35 (.725) |
| | Negative change of family relationship | 14.81 ± 4.64 | 15.11 ± 5.11 | 0.37 (.712) |
| | Psychological burden | 12.52 ± 3.94 | 12.00 ± 3.94 | 0.83 (.410) |
| | Financial and job-related burden | 10.19 ± 3.09 | 9.80 ± 3.31 | 0.73 (.465) |
| | Health-related burden | 10.43 ± 2.93 | 10.76 ± 2.87 | 0.71 (.480) |
| | Total | 92.53 ± 20.24 | 93.70 ± 19.35 | 0.36 (.719) |
| Fatigue | Physical | 3.64 ± 2.55 | 4.88 ± 2.62 | 3.00 (.003) |
| | Neurological | 2.45 ± 2.25 | 3.93 ± 2.43 | 3.90 (<.000) |
| | Psychological | 4.09 ± 2.92 | 4.25 ± 2.90 | 0.35 (.730) |
| | Total | 10.26 ± 6.75 | 13.07 ± 7.19 | 2.47 (.014) |
|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 | 79.15 ± 13.21 | 80.40 ± 14.24 | 0.53 (.599) |

Table 3. Community resource utilization or help from others by caregivers' gender (N=194)

| Variables | | Male (n=55) | Female (n=139) | χ^2 (p) |
|---|-----|-------------|----------------|--------------|
| | | n (%) | n (%) | |
| Use of day time services or helps from others | Yes | 38 (69.1) | 69 (50.0) | 6.00 (.050) |
| | No | 17 (30.9) | 69 (50.0) | |
| Total | | 55 (100.0) | 139 (100.0) | |

Table 4. Gender distribution of demented elders and caregivers (N=194)

| Variables | | Male (n=55) | Female (n=139) | Total |
|-----------------|--------|-------------|----------------|-------------|
| | | n (%) | n (%) | n (%) |
| Demented elders | Male | 9 (4.6) | 36 (18.6) | 45 (23.2) |
| | Female | 46 (23.7) | 103 (53.1) | 149 (76.8) |
| Total | | 55 (28.4) | 138 (71.6) | 194 (100.0) |

과 남편, 아들 관계가 23.7%로 약 1/4의 빈도를 보였다. 남성-여성 조합은 약 19%로 남성 치매노인과 부인 또는 며느리, 딸의 관계였다.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성별관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관계에 따라 부양 부담감($\chi^2 = 10.34, p = .016$)과 피로도($\chi^2 = 9.07, p = .02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여성 조합이 부양 부담감과 피로도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부양 부담감 하위

범주 중 심리적 부담($\chi^2 = 12.00, p = .007$), 경제적 부담($\chi^2 = 10.49, p = .015$), 건강관련 부담($\chi^2 = 11.71, p = .008$)이 다른 조합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피로도에서도 남성-여성 그룹에서 신체적 피로 $\chi^2 = 3.69, p = .013$ 와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경적 피로($\chi^2 = 6.48, p = .013$)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에서는 남성-여성 그룹의 만족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그들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탐색하고, 그러한 이해가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와 부양자 간호실무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 부양자는 중,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약 3/4이 여성이었다. 또한 약 40%가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가정 수입이 생활 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치매노인 부양 부담감을 연구한 국내외 기존 연구들과 유사했다(Kim & Lee, 1999; Kuzu et al., 2005; Roelands, Van Oost, & Depoorter, 2008; Shua-Haim et al., 2001).

주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피로도만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주부양자가 남성에 비해 부담감이 높고, 의욕이 낮으며, 더 많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더 부정적인

Table 5. Comparison of care burden, fatigue, and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by the combination of demented elders and caregiver's gender (N=194)

| Variables | | MM (n=9) | MF (n=34) | FM (n=45) | FF (n=98) | χ^2 (p) |
|------------------------------|---|-------------------|-------------------------------|-------------------|-------------------------------|---------------|
| | | M \pm SD | M \pm SD | M \pm SD | M \pm SD | |
| Care burden | Social activity restriction | 21.33 \pm 3.87 | 24.09 \pm 3.70 | 22.43 \pm 4.53 | 21.84 \pm 4.72 | 6.20 (.102) |
| | Negative change of elderly-caregiver relationship | 23.11 \pm 4.37 | 24.41 \pm 5.86 | 22.80 \pm 6.69 | 23.07 \pm 6.01 | 2.21 (.530) |
| | Negative change of family relationship | 15.66 \pm 4.58 | 16.06 \pm 5.83 | 14.44 \pm 4.81 | 14.78 \pm 4.83 | 2.22 (.528) |
| | Psychological burden | 12.00 \pm 3.50 | 13.97 \pm 4.02 ^a | 12.46 \pm 4.16 | 11.33 \pm 3.71 ^b | 12.00 (.007) |
| | Financial and job-related burden | 9.89 \pm 3.06 | 11.26 \pm 3.00 ^a | 10.20 \pm 3.11 | 9.30 \pm 3.28 ^b | 10.49 (.015) |
| | Health-related burden | 10.67 \pm 2.45 | 12.18 \pm 2.18 | 10.39 \pm 3.00 | 10.28 \pm 2.93 | 11.71 (.008) |
| | Total | 92.67 \pm 16.73 | 102.27 \pm 18.17 | 91.91 \pm 21.21 | 90.69 \pm 18.93 | 10.34 (.016) |
| Fatigue | Physical | 3.89 \pm 2.85 | 5.41 \pm 2.88 | 3.60 \pm 2.49 | 4.71 \pm 2.52 | 11.30 (.010) |
| | Neurological | 3.67 \pm 2.45 | 4.31 \pm 2.47 | 2.23 \pm 2.14 | 3.81 \pm 2.41 | 21.85 (<.000) |
| | Psychological | 4.67 \pm 2.45 | 4.43 \pm 2.85 | 3.89 \pm 3.03 | 4.19 \pm 2.93 | 1.57 (.667) |
| | Total | 12.22 \pm 7.10 | 14.15 \pm 7.24 | 9.80 \pm 6.63 | 12.71 \pm 7.20 | 9.07 (.028) |
|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 | 81.57 \pm 12.49 | 75.45 \pm 12.02 | 79.38 \pm 13.92 | 82.21 \pm 14.62 | 7.66 (.054) |

MM, MF, FM, and FF refer the male-male, male-female, female-male, and female-female group of patient and caregivers' gender respectively.

심리상태를 보인다는 Matthews(2003)와 Navaie-Waliser 등(2002)의 연구, 남성 주부양자가 여성 주부양자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수발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는 Yoo(2003)의 연구,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Kim, et al., 1998),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Park, 2004) 등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감과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다른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Park (2003)은 생활환경 이외의 제 3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과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관련한 연구는 추후 영향 변인을 밝힌 후 이를 통제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성별에 따른 부양 부담감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피로도를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인지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관련될 수 있으나 주변 자원활용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주부양자의 성별 차이 중 주변 자원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 부양자보다 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도우미 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coran(1992)은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이

부양자 역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양자 모델이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남성은 직장에서 보여지는 업무중심의 모델을 나타내어 효율적으로 부양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외부 자원 구매를 통해 집안일을 처리한다. 그에 비해 여성은 부모-자녀 모델을 보이면서 모든 부양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 하고 기능적 업무까지도 스스로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양에 소비하고 스스로의 여가시간이나 휴식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을 연구한 Roelands 등(2008)은 부양자의 주변 자원활용이 부양자가 인식하는 부양 부담감보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가족 내 대처기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부양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홍보와 문제해결형의 대처기전 교육이 부양자 간호관리 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성별 관계의 대상자 분포를 보면,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모두 여성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부양자의 60~80%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Andren & Elmstahl,

2007; Kao & McHugh, 2004; Kim & Lee, 1999; Roelands, et. al, 2008). 또한 이렇게 치매노인과 주부양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은 결국 여성은 남성보다 치매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치매노인이 되지 않는다면 치매노인을 부양할 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부양자의 60% 이상이 건강의 쇠퇴기로 접어드는 중년과 노년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치매노인 부양문제는 여성건강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들 그룹 간의 부양 부담감, 피로, 생활만족도 비교에서는 시아버지-며느리, 아버지-딸, 남편-부인으로 구성된 이성 조합이 시어머니-며느리, 어머니-딸로 구성된 동성 조합보다 부양 부담감이 크게 나타났다. 피로도에서는 남성 치매노인과 여성 주부양자 그룹이 여성 치매노인과 남성 주부양자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신체적 증상과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신경계 증상은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신체증상을 의미하는 항목들로 이성 조합 사이에서 주부양자가 여성일 때 남성보다 신체적, 스트레스성 피로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남자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부양자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다고 지적한 Lee 등(2003)과 가족관계에서 시아버지-며느리 관계가 가장 부담감이 컸다는 Kim과 Lee(1999) 연구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의 유별을 강조하는 유교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점차 기능이 떨어져 식사부터 대소변 처리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돌봐야 하는 치매노인에 대해 이성인 딸이나 며느리가 부양해야 할 경우 동성의 조합보다 더 심리적 갈등과 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별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와 치매환자 부양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인간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근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가 있다. 여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사성을 찾으려 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반해, 남성은 독립성과 경쟁을 전제로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개인적 요구와 욕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성을 관계 전문가(relationship specialists), 남성을 업무 전문가(task specialists)라고 하며,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여성의 유형을 ‘rapport talk’,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루는 남성의 유형을 ‘report

talk’라고 한다(Tannen, 1990; Wood, 2007). 그래서 부양이라는 관계에서 동성 조합은 이성 조합보다 의사소통 방법의 유사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부양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부양 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 조합에서는 부양자가 여성인 경우가 남성보다 ‘관계’를 중시하므로 더 높은 부양 부담감을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치매환자 부양에서 가족 부양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드는 것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다(Byrne & Orange, 2005). 치매환자의 반복되는 질문, 의미 해석의 어려움 그리고 부양 어려움에 대한 답론의 부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본 연구대상자가 치매센터를 이용할 만큼의 경증 상태임을 감안할 때 치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보다는 성별 차이에 의한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간호계획에서 부양자의 부양 부담감을 다룰 때 주부양자가 누구이고, 치매노인과 성별 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가, 주부양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접근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부양자를 위한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성별 관계 특성에 따라 간호중재 내용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간호접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부양문제와 여성건강 측면에서는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확대시켜가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기존 부양 부담에 대한 연구(Song & Kim, 2003)에서도 노인부양이 언제나 부담만은 아니며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바에 따라 상당부분 줄어들거나 혹은 부양만족감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Pearlin, Mullan, Semple과 Skaff(1990)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그 상황에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운용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인부양이 사회적 지원보다 가족지원에 더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족 내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부여와 부양 자체를 현실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치매센터나 요양시설의 확산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편의추출에 의한 표본의 제한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대상자 모집을 치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성별 관계에 따른 부양 부담감, 피로 및 생활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부양 부담감은 주부양자의 성별과 치매노인의 성별에 모두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양자 피로는 치매노인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주부양자 성별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요인이었고, 부양자 생활만족도는 부양자와 노인의 성별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의 부양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를 계획할 경우, 치매노인과 주부양자 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여성 주부양자는 남성에 비해 취약한 집단이므로 여성 주부양자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향후 연구와 관련된 제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반복연구이고, 둘째는 연구결과를 실무에서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와 평가연구이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다양하게 표출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주부양자에 대한 중재연구로서 여성건강과 여성주의 시각에서 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부양자의 역할을 가족 내에서 분담할 수 있는 방법과 이웃이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자 지지그룹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dren, S., & Elmstahl, S. (2007). Relationships between income, subjective health and caregiver burden in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in group living care: A cross-sectional community-based study. *Int J Nurs Stud*, 44(3), 435-446.
- Byrne, K., & Orange, J. B. (2005). Conceptualizing communication enhancement in dementia for family caregivers using the WHO-ICF framework. *Adv Speech Lang Pathol*, 7(4), 187-20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rcoran, M.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dementia management plans of spousal caregivers: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therapy. *Am J Occup Ther*, 46(11), 1006-1012.
- Fitten, L. J. (2006). Editorial: management of behavioral and psychiatric symptoms in dementia. *J Nutr Health Aging*, 10(5), 409.
- Kao, H., & McHugh, M. L. (2004). The role of caregiver gender and caregiver burden in nursing home placements for elderly Taiwanese survivors of stroke. *Res Nurs Health*, 27(2), 121-134.
- Kim, Y. E. (1999).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training on the primar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 J., & Lee, P. S. (1999). A study on the burdens and depressive reactions on families who cared for patients suffering from senile dementia. *J Korean Acad Nurs*, 29(4), 766-779.
- Kim, T. H., Kim, D. B., Kim, M. H., Lee, Y. G., & Kim, A. S. (1998).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 Korea Gerontol Soc*, 18(1), 150-169.
- Ko, H. J., Kim, M. A., Kwan, Y. S., Kim, C. N., Park, K. M. Park, J. S., et al. (2004). The fatigue experience of shift work nurses.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 18(1), 103-118.
- Kuzu, N., Beser, N., Zencir, M., Sahiner, T., Nesrin, E., Ahmet, E., et al. (2005). Effects of a comprehensive educational program on quality of life and emotional issues of dementia patient caregivers. *Geriatr Nurs*, 26(6), 378-386.
- Kwon, J. D. (1994).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caregiver burden in caring for the demented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H. J., Kim, Y. S., Kim, K. R., Kim, J. S., & Seo, J. M. (2003).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 Korean Acad Nurs*, 33(7), 936-944.
- Lee, Y. W., Kim, H. S., & Cho, I. (2008). Factors influencing care burdens of caregivers of elders with dementia who request dementia domiciliary welfare services. *J Korean Acad Fundam Nurs*, 15(3), 262-271.
- Matthews, B. A. (2003). Role and gender differences in cancer-related distress: A comparison of survivor and caregiver self-reports. *Oncol Nurs Forum*, 30(3), 493-499.
- Miller, B., & Cafasso, L. (1992).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act or artifact? *Gerontologist*, 32(4), 498-507.
-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5). Social index in Korea: Dementia prevalence rate, <http://www.nso.go.kr>
- Navaie-Waliser, M., Spriggs, A., & Feldman, P. H. (2002). Informal caregiving: Differential experiences by gender. *Med Care*, 40(12), 1249-1259.
- Park, K. N. (200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24(3), 13-29.
- Park, K. S. (2003). *The life of aged period*. Seoul: Euam Press.
- Pearlin, L., Mullan, J., Semple, S., & Skaff,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 and their measures. *Gerontologist*, 30(5), 583-94.
- Roelands, M., Van Oost, P., & Depoorter, A. (2008). Service use in family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mentia in Belgium: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Health Soc Care Community*, 16(1), 42-53.
- Rubin, A., & Bannie, E. (1992).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 Books and Cole Publishing, 175-178.
- Shin, H. S. (2001). Self-esteem,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according to the spouse's perspective. *J Korean Acad Nurs*, 31(6), 1119-1128.
- Shua-Haim, J. R., Haim, T., Shi, Y., Kuo, Y. H., & Smith, J. M. (2001). Depression among Alzheimer's caregivers: Identifying risk factors. *Am J Alzheimers Other Demen*, 16(6), 353-359.
- Song, D., & Kim, M. (2003). A study on eldercare burden and role conflict among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J Korean Womens Stud*, 19(2), 145-176.
- Tanji, H., Ootsuki, M., Matsui, T., Maruyama, M., Nemoto, M., Tomita, N., et al. (2005). Dementia caregivers' burdens and use of public services. *Geriatr Gerontol Int*, 5(2), 94-98.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 Wood, J. T. (2007). *Gendered lives: Communication, gender, and culture*. Belmont, CA: Thompson/Wadsworth.
- Yoo, H. J. (2003).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for major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ing burde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un.
- Yoo, Y. (2003). *Influencing factors to car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for senile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